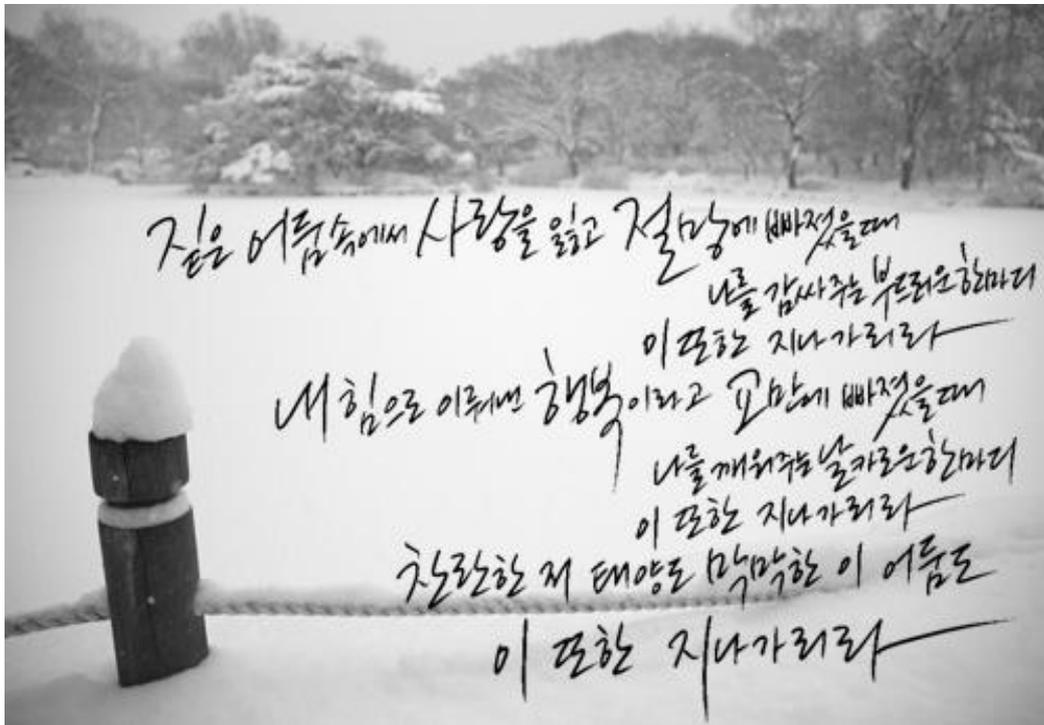


만남

2021년 1월
통권 192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 박철현 미카엘

신부님 칼럼	+ 상실의 시대-----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4
교리	신앙 산책-----	7
나눔	-----	10
지혜로운 삶	-----	12
영적 상담	-----	14
기도하는 삶	-----	16
알림	-----	17
축일을 축하합니다	-----	18
전례	-----	19
공동체 소식, 지방 공동체 소식	-----	20
활동단체 모임 안내	-----	21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안내	-----	23
미사안내	-----	24

《교황님의 1월 기도지향》

❖ 복음화 지향 : 인간의 형제애

우리가 타종교 형제자매들과 온전한 우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은총을 청하면서, 모든 이에게 마음을 열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상실의 시대

다시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상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제한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소소한 삶의 활기마저도 빼앗겨 버린 이 상황을 보면 우리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실의 시대라는 장편소설이 문득 떠오릅니다. <상실의 시대>는 일본을 뛰어넘어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로 거듭난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입니다. 혼자라는 고독 속에서 꿈과 사랑, 그리고 정든 사람들을 잃어가는 상실의 아픔을 겪는 세상 모든 청춘을 위한 장편소설입니다.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는 지금은 혼자라는 고립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신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신앙은 제일 우선적으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사랑이 담긴 시선을 선물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며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뜻을 실천하는 일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신앙생활을 잘 하면 할수록 혼자라는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보다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자신이 기대한 모습을 보지 못하면 실망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신앙마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하느님은 좋아하지만 교회는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무엇보다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삶의 활기를 되찾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발걸음이 중요합니다. 한 해의 시작은 그런 동기를 제공하는 좋은 때입니다. 그래야 상실의 시대라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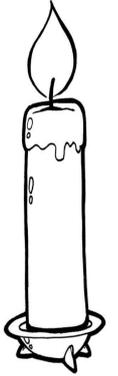
관계를 회복하는 일, 하느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될 것이고 삶이라는 수레바퀴는 새롭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우울해하고 웅크리기보다는 다시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입니다. 하느님과의 대화인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느님과 친교를 나누는 미사에 열심히 참여함으로써 다시금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북돋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마르 1,7-11)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장 “나는 믿나다”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주님! 당신의 초대에 기꺼이 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 언제나 저희들을 초대하시는 주님, 당신께 저희의 사랑을 드리나이다.

진행자 한 분이 마르코복음 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1 7 그때에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 8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 9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나자렛에서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 10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 11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pecially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다음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세례를 받았을 때의 특별한 마음이 들었다면 나누어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직접 세례자 요한을 찾아가셔서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겸허한 모습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처럼 그저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은 하늘이 놀라고 성령께서 내려오실 일이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며 하늘에서 들려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일이 하느님 아버지와의 끊어질 수 없는 관계를 드러냄과 동시에,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된 이유와 사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례 성사를 통하여 모두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부모님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감히 하느님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그런 것은 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자 하셨고,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그분에게 내려오셨듯이 우리 모두에게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느님께서 “너는 바로 내 아들, 내 딸이다”라고 새롭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세례 받은 우리 모두의 축일이기도 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느님께 자신을 바치려는 그러한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느님께 마음을 열고서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세례 받은 우리는 세례 때에 지녔던 그 순수한 마음과 자세를 새롭게 지니고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요르단 강물 속에 겸허하게 내려가셨듯이, 우리 역시 세상 속으로 겸허하게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늘 마음에 두고서 세례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와 용기를 늘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그리고 이번 달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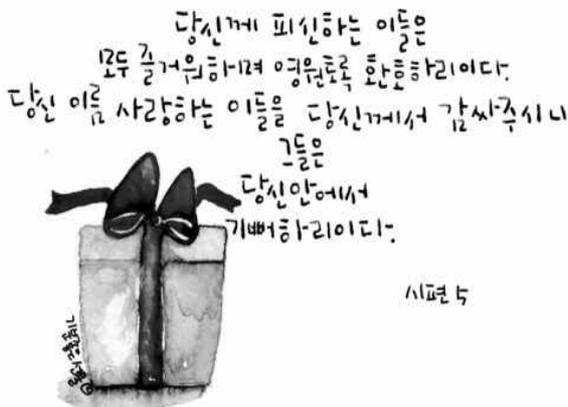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장 “나는 믿나다”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7. 신경해설 -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세상에는 많은 고통과 불행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서로 고통을 주고받는 것이지만, 어떤 이들은 하느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정말 계신다면 어째서 불행을 멈추지 않으시는 것인지, 어째서 죄 많은 사람이 편하게 잘 살고 착한 사람이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를 따져 묻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죄를 없애시는 방법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가 너무 불쌍해서 간장이 녹는구나.”(호세 11,8)

정의로우신 하느님께서서는 선행을 행복으로 갚으시고 죄악을 벌하십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거역한 죄는 무엇으로 갚을 치러야 합니까? 자기에게 목숨을 주신 분을 배반한 짓값은 죽음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자식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 탓에 죽어가는 모습을 차마 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인간 부모도 자식이 아파서 울면 애가 타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고 바라는데, 죄인들의 죽음을 보시는 하느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에제 33,11)

우리 사람들은 악인을 미워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는 원한을 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 아주 몹쓸 짓을 저지른 사람이 등장하면 죽어 마땅하다고 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극악한 죄인도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착하시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시고, 죄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을 슬퍼하십니다. 하느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당신이 우리가 자초한 벌을 대신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들이야! 너 대신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2사무 19,1)

죄인은 남을 위해 희생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가 벌을 받는다면 자기 죄 탓입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은 죄인을 위해 희생할 수 있고, 그 희생은 큰 가치를 지닙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아드님을 사람이 되게 하시어 인류가 치러야 할 짓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사도께서는 “하느님께서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시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습니다.”(2코린 5,21)하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착하신 분이 죄인들을 위해 스스로 희생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하느님께서서는 자격 없는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 덕에 무죄하게 되었으니, 죄인들을 위해 대신 희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8. 신경해설 -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께서서 우리가 받아 마땅한 벌을 대신 받아 돌아가셨다고 하여도, 단지 그뿐이었다면 그 죽음이 우리 사람에게 참된 희망의 근원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죄에 대한 벌은 이루어졌지만 의인의 희생이 받을 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1코린 15,14)

부활 : 실제로 일어난 사건

빈 무덤과 제자들의 혼란이 증언하듯,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누가 이것을 조작하려 하였다면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좀 더 그럴 듯하게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영원하신 하느님께서서 이루시는,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없는 까닭은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사도들도 믿으려 하지 않았던 것처럼, 부활은 신앙의 은총을 입지 않으면 증언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 :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결정적 증거

예수님의 부활은 라자로가 다시 살아난 것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수명을 다하면 죽어야 하는 이전의 육체적 생명을 다시 얻은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연적인 생명을 초월하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그분의 육신도 우리의 썩어 없어질 육신과는 달리 물리적인 한계를 갖지 않는 육신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즉 하느님으로서의 권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수난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요한 10,18)

부활 : 예수님과 함께 죽는 모든 이의 희망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참으로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그 말씀과 행적이 진리임을 드러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지만, 또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는 것이 참으로 인간답게 바로 사는 것임을 뜻하기도 합니다. 힘들어하는 이웃의 짐을 대신 져 주는 것이야말로 참 생명의 길입니다. 자기만 잘 살겠다고 남을 모른 채하거나 해를 입히는 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은 지상에서부터 이미 영원한 생명의 맛을 느끼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마침내 그분 안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9. 신경해설 - 하늘에 올라

주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하시어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성령을 약속하신 후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이것을 승천(昇天)이라 하는데, 우리 곁을 아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의 테두리를 벗어나신 것입니다. 또한 장차 우리가 부활하여 하늘나라에서 입을 영광을 미리 드러내어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 오르신 하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늘, 예수님께서서 올라가신 하늘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비행기나 우주선을 타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느 한 장소에 계셔야 했고 시간의 변화를 겪으셔야 했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문이 닫혀 있는데도 들어오시고, 한 번에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시었습니다. 승천은 예수님께서서 어디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서 본래 누리시던 하늘나라의 영광에 다시 들어가셨다는 말입니다.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다

신경의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서 삼위일체의 영광을 다시 입으신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님께서서 천상천하의 모든 권능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것을 뜻합니다.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다니 7,14)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 어느 곳에서든, 어느 시대에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승천하셨습니다. 지상에 계실 때에는 모든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실 수 없었지만, 하늘나라에 계신 지금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거룩한 성사와 전례에 참여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시고, 특별히 성체 안에 현존하십니다. 또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보살필 때 함께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하십니다.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뽑으시고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우리를 앞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사도들을 이렇게 나무랐습니다.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사도 1,11)

◆ 믿음의 샘 뿌리아 20년(허명자 가밀라)

짧지 않은 20년을 뒤돌아봅니다. 2021년 1월이면 함부르크 본당 레지오 마리아 믿음의 샘 뿌리아가 창단된 지도 벌써 20년이 됩니다. 강산이 두 번 바뀌었으니 세월도 참 빠릅니다.

성모님의 군대 병사로 정성어린 마음을 모아 지금의 영광을 함께 한 레지오 마리아 단원들에게 성모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996년 3월 레지오 마리아 3개의 브레시디움이 창단되어 매주 회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우리 단원들의 정성어린 열정과 기도로써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어리지 않은 연령에도 레지오 정신으로 살아온 오늘날이 행복하였으므로 성모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자신의 희생을 기록하신 성모님께 봉헌하면서 수고와 고통을 피하지 않고 성모님의 정신으로 적극적인 활동에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매주 성당에 모여 주 회합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성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교본 공부와 묵주 기도 그리고 주 회합 전후에는 미사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단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레지오 단원 모두는 매년마다 자신의 마음을 다짐하는 아치에스 행사와 영성 피정, 연차 총 친목회, 성지 순례, 단원 교육, 그리고 성모님의 밤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선교 활동, 평일미사와 고리 미사, 본당공동체 협조 등 필요로 하는 일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레지오 마리아 창단 25주년 행사를 함께 한 단원들과 협조 단원, 그리고 레지오 관심을 갖고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으로 레지오를 떠나신 단원들도 기도 안에서 다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모님의 정신으로 기도와 희생과 봉사로 주님을 찬미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주님과 성모님께서 아름다운 사랑으로 맺어주신 인연으로 4개의 브레시디움이 성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행동 단원과 협조 단원들이 공동체 안에서 성모님의 도구로 늘 기도와 찬미와 아름다운 사랑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는 성모님의 따뜻한 향기로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 모두를 잘 이끌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십시오.”(1테살 1,16-18)

◆ 복을 받는 길(반영역 라파엘 신부님)

성경의 곳곳에는 복을 받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상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느님의 계명들을 너희가 듣고 따르면 복이 내릴 것이다”(신명 11,27).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명심하여 들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주 너희 하느님의 눈에 드는 좋은 일과 옳은 일을 하는 것이므로, 그래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영원토록 잘 될 것이다”(신명 12,28). 결국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더군다나 그 복은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미칩니다. 그러나 하느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느님의 마음에 든다면 그는 분명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의 첫째 편지 2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하느님을 차지한 사람은 모두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는 행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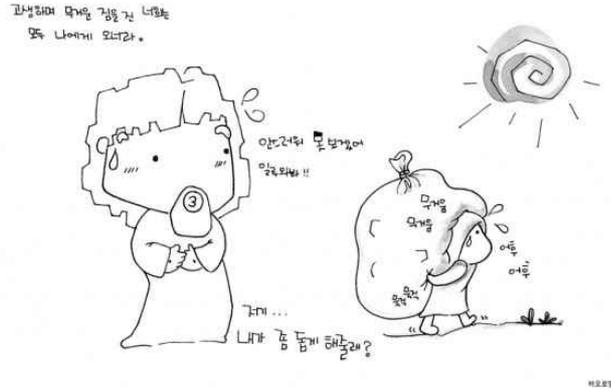
한편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내려 너희 위에 머무를 것이다. 너희는 성읍 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 몸의 소생과 너희 땅의 소출도, 새끼소와 새기 양을 비롯한 너희 가축의 새끼들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광주리와 반죽 통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들어올 때에도 복을 받고 나갈 때에도 복을 받을 것이다.”(신명 28,2-6)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에서도 밖에서도 복을 받으려거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시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에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시편 1,1-3). 주님의 말씀에 머물면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은 어제든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내 마음이 흔들려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언제라도 그분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간직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오늘의 처지에서 감사함을 발견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미룰 수 없는 사랑에 응답하길 희망하며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 새해에는 ‘기도’ 합시다(배광하 지리아코 신부님)

묵은 해니 새해니 따지지 말게
겨울 가고 봄이 오면
해 바뀐 듯 하지만
보라고
저 하늘이 달라졌는가
우리가 어리석어
꿈속에 사네



학명 스님의 글입니다. 먼저 새해 주님의 축복과 은총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정말 모든 아픔과 슬픔을 뒤로 하고 기쁘고 평화로운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코헬렛의 저자도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란 없다.(코헬 1, 9)”고 하였지만 분명 묵은 해가 있고 새해가 있는 법입니다. 새날, 새달, 새해가 없다면 인생이 너무 무미건조해 지리라 생각합니다. 새해가 있어야 지난해의 묵은 찌꺼기인 불화, 불목, 여러 상처들을 다시금 씻어 버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새로운 설계를 새해 참신한 기분으로 새롭게 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새롭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정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욕심과 이기심, 알량하고 쉽게 상처 받던 내 마음의 얼룩이 사라지기를, 새해 새 빛을 받으며 그 광채에 영원히 머무를 수 있도록, 주님과 멀어졌던 나의 이탈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만이 내 생의 모두라는 사실에 더 크게 눈뜰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뜬 눈을 지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작은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보일 수 있다는 자명한 진리에 진정 눈뜰 수 있어야 합니다.

새해에는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도 분단된 국가의, 민족의 백성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세상은 전쟁의 살육이, 그 포성이 멈추지 않았음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 평화가 오지 않았는데 나 홀로 두 다리 뻗고 잠잘 수 있는 이기심에는 결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음에 깨달음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진정 새해의 밝은 태

양이 떠오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빛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해의 참된 기원과 그에 따른 실천이 있었을 때 민수기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 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민수 6, 24~26)

우리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복, 그 복은 하느님께서 우리 고달픈 인생길에 참 동행자가 되어 주신다는 약속의 축복이며 사도 바오로의 말씀대로 하느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갈라 4, 7)

때문에 우리에게는 넘치는 희망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같은 축복이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얼굴’은 구약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파님’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파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당신의 마지막 걸작 품인 당신 모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뒤, 보시니 “참 좋았다”(창세 1, 31)하신 인간이 너무나 타락하여 끝내는 멸하시려는 하느님의 탄성, 그래도 당신께서 만드신 당신의 자녀인 인간이 가여워 다시금 인간을 향하여 당신 자비와 사랑, 용서와 자애의 얼굴을 보이시는 하느님 사랑의 얼굴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파님’의 얼굴을 인간을 향하여 보이신다는 축복인 것입니다. 때문에 죄의 유혹 속에 더는 헤어 나올 수 없던 연약한 우리 인간이 구원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로 영광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새해에는 그 같은 진실한 복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복이 모든 이에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평화가 모든 가정에, 나라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 같은 복을 받은 우리는 진정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은 그 행복을 진정 느끼며 사는 이에게 가치가 있습니다.

행복을 느끼는 이들은 진정 그 행복에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 같은 감사가 있을 때 다른 이들에게도 그 복을 내릴 수 있으며, 복을 조금이라도 나누려는 노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누었던 복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하느님의 축복은 분명 돌고 돌아오는 은총인 것입니다. 새해에는 그 같은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기도 드립니다.

질문 : 요즘 언론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노인으로서 어른 대접을 받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아이들의 문화에 적응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노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의외로 적은 듯합니다. 노후자금만 마련해 놓으면 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고요. 어떻게 살아야 나이 들어서도 존중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답변 : 홍성남 신부(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소장)

우선 자기 마음을 다듬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가끔 성지순례를 가곤 하는데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분이십니다. 그런데 연세 드셨다고 해서 다 성품이 좋고 마음이 관대하신 것은 아니더군요. 성격이 별로 안 좋으셔서 주위 분들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분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소위 ‘노인성 성격장애자’들이신데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건 말건 자식 자랑, 돈 자랑 등 듣기 민망한 자기자랑을 늘어놓는 분들, 성지에서 기도는 안 하고 가게에서 물건 사느라 정신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찾게 만드는 분들, 가는 곳마다 먹는 것과 자는 것, 구경할 것 하나도 없다고 온종일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분들 등 별의별 분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교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교양이 있고 공부 못한 사람은 아니란 말이나 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공부한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더군요. 오히려 공부깨나 하고 돈깨나 만진다는 분들이 사고치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를 더 많이 보았으니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듯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 들어가면서 얼마나 자신의 마음을 많이 들여다보았는가, 마음공부를 얼마나 잘하였는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늘 자기 자신을 다듬고 사신 분들은 어디에서건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존중받고 어르신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뵈기에도 아주 고와 보이셔서 참 곱게 나이 드셨다는 칭찬을 듣거나 어르신 소리를 듣습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활기찬 인생을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그런데 같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떤 이는 더 무기력해지고 어떤 이는 더 활력이 넘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분이 돈이 많으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져서 활기차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들 하십니다.

돈이 인생의 행복을 좌우한다고 믿는 것은 본인으로서는 현실성 있는 생각이라고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심리학자 셀리그먼이 설명하기를 “현재를 즐기면서 미래를 계획하고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현재의 문제가 일시적이고 통제할 수 있고 특정상황에 국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낙천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 운명론자들, 특하면 점집을 찾는 사람들,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급하게 우울감에 빠지는 분들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삽니다. 우선 지금의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에 압도되어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사소한 좌절이 몇 시간 혹은 몇 개월간 마음 안에서 떠나지 않아서 안절부절못하며 삽니다.”

이것을 통칭하여 유연한 시간관념이라고 하는데 시간에 대해 유연성을 지닌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노후인생에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연한 시간관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루카복음 2장 25절에서 38절에 나오는 시메온과 안나라는 노인분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분들은 평생을 자기 인생을 하느님께 맡기고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며 사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셔서도 사람들로부터 어르신 대접을 받으셨고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은총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느님께 나를 봉헌하는 삶을 사신다면 나이 들수록 사랑받고 은총 받으실 것입니다.



❖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 의미와 행사

1.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개막미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개막미사가 2020년 11월 29일(대림 제1주일) 12시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있었습니다.

2. 희년 전대사 수여 안내

교황청 사도좌 내사원에서 신자들의 신앙 증진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2020년 11월 29일~2021년 11월 27일)’ 동안 그리스도 신자들이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기도하면 교회의 천상보고에서 전대사를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과 함께 교구 희년 경축미사 및 교구 순례 성당과 성지에 대해서는 각 교구 안내를 참조해 주시길 청합니다.

3.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전대사 받는 조건

1) 전대사 통상 조건 :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뜻에 따른 기도

2) 위의 통상 조건을 채우고, 다음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때 전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교구장 주교가 희년을 경축하도록 지정한 성당과 성지 중 한 곳을 순례하여 아래의 순서대로 기도합니다.

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유해나 유물 앞에서 잠시 기도와 묵상

② 주님의 기도와 신경

③ (다음 간구로 기도 마침)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4) 김대건 신부님과 함께 탄생 200주년을 맞는 우리나라 두 번째 사제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시복을 위한 본당별 기원 미사(2021년 3월 1일(월))에 참례하고,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시복 시성을 위한 기도와 주모경을 바칠 때에도 전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노인, 병자, 그리고 중대한 이유로 집에서 나갈 수 없는 이들도 모두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되도록 빨리 세 가지 통상 조건을 채우겠다는 지향을 지니고 김대건 성인의 상본 앞에서 영적으로 자신을 결합시켜 자신의 기도와 고통, 힘겨운 삶을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봉헌하면 똑같이 전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5. 연옥에 갇힌 신자의 영혼에게 대리 기도의 방식으로 전대사를 얻어 줄 수도 있습니다.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50주년 기념행사 준비

존경하고 사랑하는 본당 및 지방공동체 형제자매님들과 더불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올 수 있었던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들의 만남은 벌써 50년이란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2021년도에 우리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행사를 다음과 같이 준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행사 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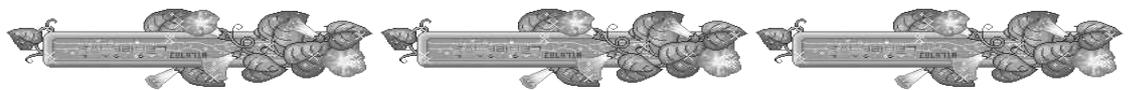
- 1) 기념미사(14시) : 2021년 6월 26일(토), 함부르크 대교구 주교좌성당
- 2) 음악회(16시) : 함부르크 대교구 주교좌성당
- 3) 기념식사(18시) : 함부르크 대교구 주교좌성당 강당
- 4)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50주년 기념 책자 발간



* 행사 준비 담당 *

- 1) 기념 미사 : 주임신부님, 회장님, 전례분과.
- 2) 사진전시회 : 최장용(레오),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이동훈(노엘), 박성아(베로니카)
- 3) 음악회 : 김성윤(마르코), 김한솔나(리드비나)
- 4) 50주년 기념 책자 발행 : 김진호(프란치스코), 전우연(아네스), 허채열(크리스티안), 정명옥(살로메)

* 협조 사항 *



상기와 같이 5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 형제자매님들께 도움을 청하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로 함께하는 행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1) 각 개인이나 가정에서 50주년 기념이 될 수 있는 사진들.
- 2) 개인들의 시, 수필, 신앙체험 등 그 외에 좋은 추억의 글들.
- 3) 5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자유기도를 전 신자분들께 청합니다.

기도하신 분들은 성당 기도모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 : 준비 위원장 허길조(안드레아) Tel. 5553441

❖ 1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4일	엘리사벳 앤 시튼	김산	28일	카롤리네	김계희
21일	아네스	유곡지 김잔디 정진아 김혜원 정인실 정선미 전우연	28일	토마스 아퀴나스	백정선
			31일	요한 보스코	강석길
27일	안젤라 메리치	최희주			

❖ 1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마리아	이복심(B) 신유민(H)	19일	마리오	김형철(O)
5일	시메온	김석주(H)	21일	아네스	강나래(H) 정순자(H) 김혜경(O) 이인영(B)
8일	지그리드	Giersberg Sigrid(O)	27일	안젤라	김영희(H)
17일	안토니오	문철주(H)	28일	토마스 아퀴나스	고광완(B)
18일	크리스티나	김미영(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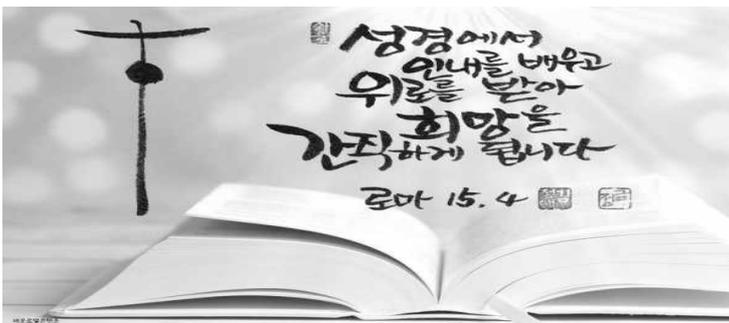
사랑하고
축하합니다

❖ 1월 성가번호 ❖

1월	입 당	봉 헌	성 체	과 견
1일	237	212	198	44
3일	487	210	498	100
10일	481	213	151	1
17일	411	220	153	445
24일	450	219	178	63
31일	329	511	502	28

❖ 1월 미사 전례 봉사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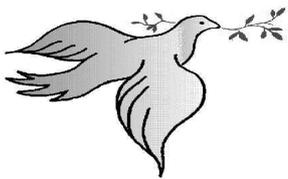
1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커피 봉사
1일				X
3일	허채열(크리스티안) 허영란(엘리사벳)	김치수(도미니코) 이영희(클라우디아)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최장용(레오)	X
10일	최화영(시몬) 최종금(로사)	이철우(아우구스티노) 이영희(체칠리아)	주일학교	X
17일	청년회	청년회	청년회	X
24일	이경구(안스카) 유곡지(아네스)	배성우(도미니코) 심은희(안나)	김진호(프란치스코) 최장용(레오)	X
31일	최성자(벨라텃다) 김매자(베로니카)	이영월(베드로) 김정옥(크리스티나)	주일학교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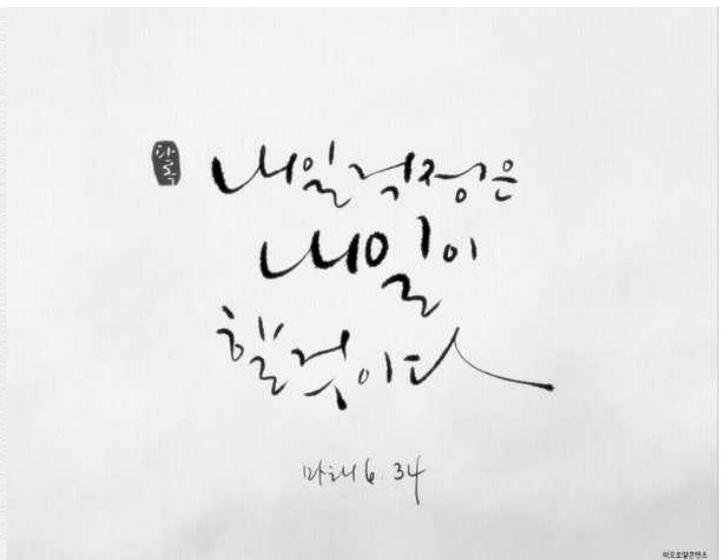
❖ Hamburg 공동체 소식

1.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때지만 행복하고 희망으로 가득 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2. 1월 1일 금요일 15시 만남성당 강당에서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과 세계 평화의 날 미사를 봉헌합니다. 미사 후에 전통적으로 해왔던 떡국 나눔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없겠습니다.
3. 1월에도 일체의 모임은 없으며 미사 후 커피 나눔도 없겠습니다. 여전히 힘든 시기입니다. 이럴수록 서로서로 기도하면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이 시기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청합니다.



※ 지방공동체 미사는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지방공동체 신자분들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그리고 거리 두기를 잘 지켜서 건강하시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 활동단체 모임 안내 ❖

사목 협의회	매일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한말조(마리안나)	
			부회장	허명자(가밀라)	
			부회장	최영숙(데레사)	
			전례부장	문경영(아가다)	
			총무	이정훈(요나스)	
주일 학교	매일 셋째 일요일	만남성당	교감	최영자(파울라)	
연령회	매일 넷째 목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회장	정정숙(아나벨)	
예비자 교리		만남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레지오 마리아	믿음의 샘	매일 첫째 화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허명자(가밀라)
	자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강순행(마르가리타)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오전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현영애(헬레나)
	사랑의 모후 Pr. (청년)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박성아(베로니카)
구역	1구역	반장	최종금(로사)		
		총무	김매자(베로니카)		
	2구역	반장	이영희(체칠리아)		
		총무	정정숙(아나벨)		
	3구역	반장			
		총무	이경구(안스카)		
	4구역	반장	육종인(베로니카)		
		총무	이순자(마리아)		
청년회	매일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김한솔나(리드비나)		
		부회장	황혜인(율리아)		
요셉, 마리아회	매일 둘째 수요일 오전미사 후	회장	조현영(로사리아)		
		총무	이정은(프란치스카)		
여성 봉사회		담당자	이정옥(크리스티나)		
			김매자(베로니카)		
			권지연(안드레아)		

1월 중 행사 예정표

일	요일	전례일	단체 행사	비고
1	금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세계 평화의 날)	떡국 나눔은 없습니다	
2	토	성 바실리오와 성 그레고리오 주교 학자		브레멘 공동체
3	일	주님 공현 대축일		
4	월			
5	화	소한		
6	수			
7	목			
8	금			
9	토			오스나브뤼크
10	일	주님 세례 축일		
11	월			
12	화			
13	수			
14	목			
15	금			
16	토			하노버 공동체
17	일	연중 제2주일		
18	월			일치 주간
19	화			
20	수	대한		
21	목	성녀 아녜스 동정 순교자 기념일		
22	금			
23	토			
24	일	연중 제3주일, 하느님의 말씀 주일		
25	월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		
26	화	성 디모테오와 성 티토 주교 기념일		
27	수			
28	목	성 토마스 아퀴나스 사제 학자 기념일		
29	금			
30	토			
31	일	연중 제4주일, 해외 원조 주일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박철현 미카엘
사목회장 한말조 마리아나(☎ : 0157 7021 0466)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mann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보 만남 ❖

편집인 박 철 현 미카엘 guess8823@gmail.com
 본당 신부님 H.P : 0176 4321 9708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둘째 금요일 17시 30분(2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4시 30분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